



청담동 본당 설립

50주년 기념의 해

(2022.11.20.~2023.11.26.)



17세기 말, 은자의 나라 조선의 땅에 복음의 씨가 뿌려져 수많은 순교자의 피와 눈물로 100여 년 만에 신앙의 자유를 얻게 되었고, 그 후 한강 변의 작은 촌락의 청년 이인의 프란치스코를 통해 신앙의 공동체로 자리한 숯골 공소는 바로 우리 청담동 성당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뿌리에서 싹이 터서 반세기를 자라 청담동 본당이라는 커다란 나무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청담동 본당 설립 50년을 앞두고 지나온 시간을 되돌아보면서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손길이 언제나 함께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에 청담동의 모든 교우는 모든 시간, 모든 상황 속에서 항상 함께하시면서 이끌어 주셨던 하느님께 감사와 찬미를 통해 본당의 50년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기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다시 첫 마음으로 앞으로 100년을 향해 더욱 힘찬 신앙의 발걸음을 내딛기 위해 청담동 본당은 모든 신자와 함께 기쁜 마음으로 올해 그리스도 왕 대축일인 11월 20일부터 내년 그리스도 왕 대축일인 2023년 11월 26일까지를 “청담동 본당 설립 50주년 기념의 해”로 선포합니다.

이제 50주년 기념의 해의 문을 열면서 2대 주임신부였던 최창정 신부님의 <청담동 본당 주보> 창간사의 일부를 마음에 새겨 보며, 우리 모두 청담동 본당을 시작했던 첫 마음으로 50주년 기념의 해를 만들어 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청담 본당의 주인입니다. 여러분의 자손들은 오래오래 이곳에서 살면서 하느님의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손들은 이곳에서 세례를 받고 결혼하고 이 땅에 뼈를 묻을 것입니다. 강남 지역의 어디든지, 길거리에도 산등성이에도 본당 성당에도 여러분의 발자취, 여러분의 땀방울과 정성으로 점철될 것입니다. 같이 손잡고 앞으로 나갑시다. 같이 손잡고 하느님 나라를 확장하고, 하느님 가족을 반성시키면서 구석구석까지 하느님이 기쁜 소식을 울려 퍼지도록 합시다.”

주제 성구: **“나에게 힘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필리 4.13)

표어 (슬로건) : **함께 걸어온 50년, 함께 걸어갈 100년.**

실천사항 (봉헌캠페인)

1. 목주기도 200만단 봉헌
2. 전신자 성경 필사
3. 성체조배의 생활화(성시간 참여, 성체 묵상)
4. 1인 1후원회 가입
(성소후원회, 군중후원회, 빈첸시오회, 티모테오 장학회, 해외선교후원회, 문화선교후원회)
5. 입교, 회두 권면하기